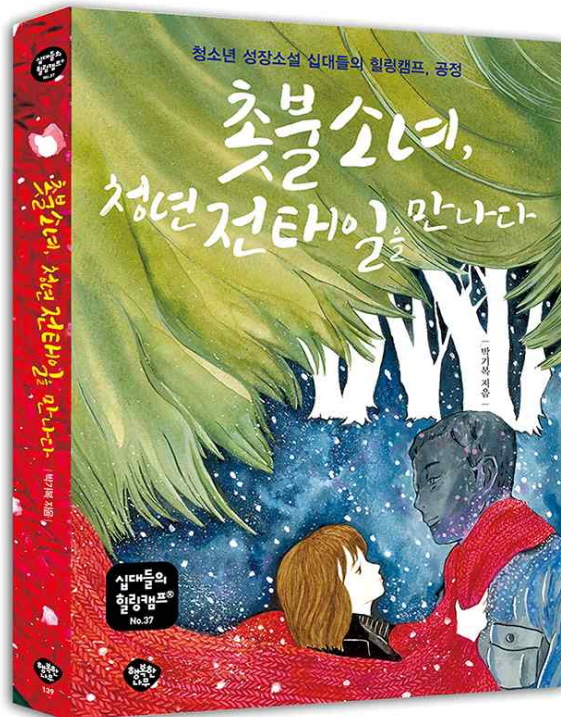


학생용 독서 활동지(중학생)

촛불소녀, 청년 전태일을 만나다

청소년 판타지소설 십대들의 힐링캠프, 공정



박기복 글 / 행복한나무 / 188쪽

- 👉 주제어 : #공정 #노동자 #인권 #전태일 #근로기준법 #김용균 #이선희평택항
👉 분류 : 문학 > 한국문학 > 청소년소설

| | | | |
|-----|----|---|---|
| 중학교 | 학년 | 반 | 번 |
| 이름 | | | |

춧볼소녀, 청년 전대일을 만나다

청소년 성장소설 심대들의 힐링캠프, 공정

구 성

| 활동 | 수업 | 활동 제목 | 세부 내용 |
|---------|---------------|--|--|
| 읽기 전 활동 | 1차시 | •책과 만난 첫인상 •검색은 나의 힘 | •책 표지를 살피며 감정과 생각을 떠올린다. •검색을 통해 필요한 배경지식을 미리 쌓는다. |
| | 2차시 | •거침없이 쓰기 | •소설의 핵심 상징에 대한 생각을 미리 해 본다. •거침없이 쓰기를 통해 글쓰기 솜씨를 키운다. |
| 참고자료 | 책과 친해지는 습관 | | |
| 읽기 중 활동 | 3차시 | • 줄거리 정리하기 • 잠깐 멈춤! 생각! • 옮겨 쓰고 낭독하기 | • 사건과 감정/생각을 중심으로 줄거리를 정리한다. |
| | 4차시 | | • 지금까지 읽은 내용에 대해 깊이 생각한다. |
| | 5차시 | | • 본문 일부를 옮겨 쓰고 낭독하며 책의 맛을 느낀다. |
| 읽기 후 활동 | 6차시 | • 내용 이해하기 • 깊이 이해하기 | • 다양한 활동을 통해 책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한다. |
| | 7차시 | • 토론하기 | • 책에서 뽑은 주제로 토론한다. • 존중의 마음으로 토론하고, 새로운 배움을 얻는다. |
| | 8차시 | • 생각 확장하기 | • 책의 주제의식을 깊이 있게 탐구한다. |
| 참고자료 | 독후감을 쉽게 쓰는 방법 | | |
| 독후감 쓰기 | 9차시 | • 독후감 쓰기 준비 • 독후감 쓰기 | • 편하고 쉽게 독후감을 쓰는 요령을 익힌다. |
| | 10차시 | • 독후감 공유하기 | • 독후감을 공유하며 생각의 폭을 넓힌다. |

책과 만난 첫인상

표지는 책의 얼굴입니다. 사람의 얼굴에 많은 의미가 담겼듯이 책 표지에도 다양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책과 얼굴을 맞대고 표지를 살피는 데서 독서가 시작됩니다.

1. [주제 탐색] 노동자란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2. [앞표지] 소녀는 왜 동상에 목도리를 돌려주는 걸까요?

3. [차례] 차례 제목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나요? (각 장의 제목은 전태일 열사의 유서와 말에서 따왔습니다.)

검색은 나의 힘

소설과 관련된 배경지식을 쌓으면 책을 더 깊이 만날 수 있습니다. 아래 단어로 검색해서 알게 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세요.

| #이 선호평택항 | #전태일 | #중대재해처벌법 |
|----------|------|----------|
| | | |

책과 친해지는 습관

● 한 달에 한 권은 책을 삽니다.

책을 사려면 책을 살펴야 하고, 좋은 책을 고르다 보면 책을 보는 안목이 생깁니다. 돈을 들이면 그만큼 애정이 가고, 책꽂이에 꽂아두면 나중에라도 읽게 됩니다. 책과 친해지는 으뜸 방법은 책을 사는 것입니다.

● 책으로 하루를 열고 마감합니다.

‘아침10분독서’가 얼마나 효과가 좋은지는 충분히 검증되었습니다. 자기 전에 책을 읽으면 뇌파가 안정되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휴대전화가 아니라 책으로 아침을 열고, 하루를 닫으세요.

● 책에 흔적을 남기며 읽습니다.

“여러 사람이 같은 책을 읽을 때 그들이 읽는 책은 정말 같은 책일까?”(미하엘 엔데/모모 작가)
같은 책을 읽어도 인상 깊은 부분, 배운 점, 느낀 점이 다 다르기에 실제로는 저마다 다른 책을 읽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책을 읽을 때는 밑줄을 긋고 메모하면서 책과 대화를 나누세요. 그러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나만의 책이 탄생합니다.

● 읽기를 멈추고 골똘히 생각합니다.

“배우고 생각하지 않으면 어둡고,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다.”(공자)
아무리 좋은 책도 자기 생각을 거치지 않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진짜 자기 것이 되지 못합니다. ‘생각하지 않는 자여, 그대 이름은 바보!’란 말이 있습니다. 받아들이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바보 같은 사람이 됩니다. 책을 읽는 중간 중간에 잠시 멈추고, 읽은 내용을 골똘히 생각해 보세요.

● 하루에 한 번은 낭독합니다.

낭독은 책 읽는 재미를 키우고, 뇌를 풍성하게 자극하며, 기억을 촉진하고, 집중력을 높이며, 감정 표현력을 키웁니다. 또한 읽기 능력이 향상되고, 발음이 좋아지며, 독해력과 글쓰기 실력도 길러집니다. 옛 선비들은 낭독을 핵심 공부법으로 삼았습니다. 책을 소리 내어 읽어보세요. 책이 새롭게 다가옵니다.

잠깐 멈춤! 생각!

멈추고, 생각하기는 책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정리하고, 인물들을 머리에 그려보기도 하고,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도 상상해 보세요. 책에서 읽은 문장을 그대로 떠올려도 좋습니다. 깊이 고민하고, 질문도 해 보세요. 그리고 자기 안에 떠오른 **생각, 느낌, 고민, 질문 등을 적으세요.**

옅어 쓰고 낭독하기

이제까지 읽은 대목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을 또박또박 옅어 적습니다.
다 적은 뒤에는 소리 내어 읽습니다.

잠깐! 고민

소희는 다들 그렇게 하니 자기도 그렇게 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잘못이 떨어지는 걸까요?

더럽고 성격이 나쁜 송근우를 아무도 좋아하지 않았다. 몇몇은 송근우를 찌따라며 놀리고 괴롭히기도 했다. 터놓고 말해서 누구나 송근우를 보면 혐오감이 들 수밖에 없다. 나도 그 가운데 한 명이였다. 힘들고 짜증이 나면 송근우를 대상으로 내 스트레스를 풀었다. 나쁜 아니라 다들 그렇게 했다. 내가 다른 점이라면 더러운 외모에 냄새라는 놀림거리를 덧붙인 것이다. - 51~52쪽 -

줄거리 정리하기

소설을 이해하려면 먼저 줄거리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줄거리를 정리하라고 하면 올챙이처럼 앞부분만 자세히 쓰고 뒷부분은 대충 마무리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적당한 양으로 충실하게 이야기를 정리하면 책을 이해하는 힘이 저절로 길러집니다. 줄거리를 잘 정리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사건을 인과관계에 맞게 기록합니다. 둘째, 등장인물의 생각과 감정이 나타나고 변화하는 과정을 기록합니다. 사건, 감정, 생각을 적절하게 결합하면 줄거리가 됩니다.

| 구분 | 핵심 사건 | 핵심 감정 / 생각 |
|------------------------|-------|------------|
| <04> 소중한 추억의 서재 | _____ | _____ |
| <05> 나를 영원히 잊지 말아 줘 | _____ | _____ |
| <06> 반지의 무게 | _____ | _____ |

잠깐 멈춤! 생각!

멈추고, 생각하기는 책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정리하고, 인물들을 머리에 그려보기도 하고,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도 상상해 보세요. 책에서 읽은 문장을 그대로 떠올려도 좋습니다. 깊이 고민하고, 질문도 해 보세요. 그리고 자기 안에 떠오른 **생각, 느낌, 고민, 질문 등을 적으세요.**

움거 쓰고 낭독하기

이제까지 읽은 대목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을 또박또박 움거 적습니다.
다 적은 뒤에는 소리 내어 읽습니다.

잠깐! 고민

할머니는 왜 어린 소희에게 예쁜 곳이 아니라 사람 사는 곳을 보여주었을까요?

당시에 할머니는 나를 작은 차에 태우고 밖으로 자주 돌아다니셨다. 공장이 밀집한 공단, 사람이 바글거리는 재래시장, 철거가 이루어지는 낡은 동네, 시뻘건 옷을 입은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는 거리 등이었다. 육아를 하는 평범한 엄마들이 다니지 않는 독특한 곳들이었다. 엄마도 할머니가 나를 평범하지 않은 곳에 많이 데리고 다니는 걸 알았다.

“예쁜 곳이 아니라 사람 사는 곳을 봐야 해.”

- 71~72쪽

줄거리 정리하기

소설을 이해하려면 먼저 줄거리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줄거리를 정리하라고 하면 올챙이처럼 앞부분만 자세히 쓰고 뒷부분은 대충 마무리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적당한 양으로 충실하게 이야기를 정리하면 책을 이해하는 힘이 저절로 길러집니다. 줄거리를 잘 정리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사건을 인과관계에 맞게 기록합니다. 둘째, 등장인물의 생각과 감정이 나타나고 변화하는 과정을 기록합니다. 사건, 감정, 생각을 적절하게 결합하면 줄거리가 됩니다.

| 구분 | 핵심 사건 | 핵심 감정 / 생각 |
|-----------------------|-------|------------|
| <07> 배고프다 | _____ | _____ |
| <08> 도울 수만 있다면 | _____ | _____ |
| <09> 나를 아는 모든 나 | _____ | _____ |

잠깐 멈춤! 생각!

멈추고, 생각하는 책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정리하고, 인물들을 머리에 그려보기도 하고,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도 상상해 보세요. 책에서 읽은 문장을 그대로 떠올려도 좋습니다. 깊이 고민하고, 질문도 해 보세요. 그리고 자기 안에 떠오른 **생각, 느낌, 고민, 질문 등을 적으세요.**

옅어 쓰고 낭독하기

이제까지 읽은 대목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을 또박또박 옅어 적습니다.
다 적은 뒤에는 소리 내어 읽습니다.

잠깐! 고민

어떤 사람을 영원히 잊지 않고, 추억의 서재에 소중하게 간직하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친우여.
나를 아는 모든 나여.
나를 모르는 모든 나여.
부탁이 있네.
나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영원히 잊지 말아 주게.
그리고 바라네.
그대들 소중한 추억의 서재에 간직하여 주게.

- 전태일 열사 유서 중에서 188쪽 -

내용 깊이 이해하기

【질문1】 처음에 소희는 제시문(가)와 같았지만 나중에는 제시문(나)처럼 변합니다. 소희의 변화에 대해 정리해 보세요.

(가)

처음부터 내가 일부러 그러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약한 애들이 알아서 내 밑으로 기어들었고, 내가 한마디 하면 기가 죽어서 반항도 못 했다. 나는 비굴하게 구는 애들이 측은해 보이기는커녕 더 만만해 보였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대했다. 내가 약간 심하게 굴기도 했지만, 다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다. (43쪽)

홍다솜에 따르면 서안나는 집이 가난해서 학교가 끝나면 지역아동센터에 가서 저녁을 먹고 집으로 간다고 했다. 지역아동센터가 쉬는 날이면 한끼도 못 먹고 그냥 굶는다는 것이다. 요즘 같은 시대에 밥도 제대로 못 먹을 만큼 가난하게 산다는 게 이상했다. 아무리 가난해도 집에서 밥은 먹고 살 수 있지 않을까? 요즘은 가난한 사람을 위해 나라가 지원도 많이 해 준다는데, 어떻게 해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지낼까? (77쪽)

오후에 친구들에게 서안나에 대해 험담을 늘어놓았고, 친구들은 내 의도를 알아채고 즉각 반응했다. 처음에 서안나를 책벌레로 부르다가 ‘책’을 빼고 ‘벌레’로 수정했다. 급식실에서 벌레처럼 밥을 먹고, 책을 벌레처럼 뜯어먹으니 벌레라는 별명은 매우 적절했다. 내가 서안나를 벌레로 부르면 서안나는 벌레가 된다. 내게는 그만한 힘이 있다. 서안나 반에 친구가 많은 이수정이 앞장서서 별명을 소문냈다. 벌레라는 별명은 입에 착착 달라붙기에 삽시간에 번졌다. (79~80쪽)

(나)

“선물이 너무 많아서 걱정인 거야, 내 용돈이 걱정인 거야?”
 “선물이야 많으면 좋지만…….”
 “내 용돈 걱정은 안 해도 돼.”
 그렇게 쉽게 말했는데 갑자기 묵직한 진실이 나를 때렸다. 나는 돈 걱정을 한 적이 없었다. 필요한 돈은 언제든지 쓸 수 있었다. 내가 쓰지 않아서 그렇지 백화점에서 100만 원짜리 옷을 사도 뭐라고 하지 않는다. 물론 그런 적은 없지만 내가 적당한 이유를 대기만 하면 엄마도 아빠도 돈 쓰는 걸로 뭐라 하지 않는다. 나는 그러고 사는데, 어떤 이는 하루 내내 죽도록 일해도 먹고 싶은 빵을 사 먹지도 못한다. 또 어떤 회사는 하루 10만 원을 아끼려다 앞날이 창창한 청년을 죽게 만들었다. 나와 그 사람들이 과연 같은 세상에 사는 걸까? 할머니는 전태일 오빠가 돌아가신 뒤에 이런 불평등한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평생 싸우신 걸까? 갑자기 내가 걷는 길거리가 무척 낯설어졌다. (171~172쪽)

지역아동센터를 빠져나오는데 조금은 어깨가 가벼워진 느낌이 들었다. 습격을 당한 뒤부터 나를 짓누르던 무게감이 사라진 듯했다. 택시를 잡으려다가 마음을 고쳐 먹었다. 어둠이 내리는 거리를 느긋하게 혼자 걸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눈여겨보며 길을 걸었다. 수많은 삶들이 내 걸음을 스쳐 지나갔다. 언제부터인지 하얀 옷 소녀가 나와 나란히 걸었다. 소녀 손에는 내가 전에 사 주었던 봉어빵 봉지가 들려 있었다. (178쪽)

1-1. 소희가 어떻게 변했는지 적어보세요.

1-2. 소희가 변하게 된 계기와 이유를 정리해보세요

【질문2】 엄마와 할머니는 사이가 별로 안 좋고 갈등이 심합니다. 그런데 아래와 같은 일이 있는 후 관계가 좋아집니다. 그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할머니 손이 움직일 때마다 걱정인형 몸통이 태어나고, 표정이 빛어졌다. 신통방통한 기술에 감탄하며 구경하다가 문득 엄마를 봤다. 엄마는 소파에 앉아 팔로 이마를 기댄 채 잠들어 있었다. 조금 전까지 딱딱하기만 하던 얼굴빛이 아니었다. 그 어느 때보다 편안했다. 엄마는 요즘에 심한 불면증에 시달렸다. 밤에 악몽으로 잠에서 깨었을 때 잠들지 못한 엄마를 본 게 한두 번이 아니었다. 아침이면 얼굴이 푸석푸석해서 제대로 잠을 못 잔 티가 그대로 났다. 그런 엄마가 저렇게 편하게 자다니, 뜻밖이었다.

……(중략)……

미싱은 언제나 멈출 줄 몰라 / ♪ 드르륵 드르륵

바늘은 바쁘고 일감은 끝없어 / ♪ 도로록 도로록

할머니가 흥얼흥얼 조용히 노래를 불렀다. 환각에서 들었던 바로 그 노래였다. 젊은 엄마는 할머니였고, 어린 딸 연주하는 바로 엄마였다.

……(중략)……

할머니는 엄마 옆으로 가 앉더니 조용히 노래를 흥얼거렸다. 할머니 옆에 나란히 앉아서 나도 그 노래를 낮게 따라 불렀다. 한낮에 잠들었던 엄마는 해가 누엣누엣 질 때가 되어서야 깨어났다. 잠에서 깬 엄마는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해 보였다.

- 151~155쪽

2-1.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왜 저 상황에서 오랜만에 깊게 잠들 수 있었을까요?

2-2. 이 일이 있는 뒤에 엄마가 변합니다. 엄마는 왜 변했을까요?

【질문3】 할머니가 들려준 전태일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답해보세요.

1968년, 할머니는 열세 살이었고, 청계천 평화시장에 자리한 봉제공장에 취업했다. 청계천 일대에는 많은 영세 봉제공장이 밀집해 있었고, 한창 개발에 몰두하던 당시 한국 경제를 이끄는 핵심 동력원 가운데 한 곳이었다. 수많은 영세 봉제공장에서 수만 명이나 되는 노동자들이 일했는데, 할머니 또래인 어린 시다(보조원)들이 꽤 많았다. 봉제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80%가 여성이었고 상당수가 10대였다. 그 어린 소녀들이 대한민국 경제개발을 이끄는 동력이었다.

……(중략)……

그날 이후 열다섯 소녀는 세상에 눈을 떴다. 순둥이처럼 순응하며 살던 어린 소녀는 세상이 얼마나 부조리한지 깨우쳤다. 할머니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전태일 오빠가 그렇게 간절히 외치던 ‘근로기준법’이 무엇인지 공부하는 것이었다. 그 뒤로 한평생 동안, 할머니는 전태일 오빠가 먼저 간 길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살았다.

-139~146쪽

3-1. 할머니가 일하던 때의 시대상황과 노동환경을 정리해보세요.

3-2. 전태일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3-3. 전태일은 왜 분신을 했을까요?

3-4. 전태일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적어보세요.

토론하기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회사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은 정당한가?

(가)

임혜서 때문에 아빠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나도 어느 정도 파악은 했다. 앞서도 말했지만, 아빠 회사는 우리 도시에서 가장 크다. 워낙 큰 회사다 보니 관련된 업체가 꽤 많다. 그중에는 같은 공장 내에 위치하면서 일감을 받아 일하는 사내하청업체도 몇 곳이 있다. 임준서는 사내하청업체에서 일하던 일용직 노동자로, 인력파견업체에서 일정한 소개비를 받고 사내하청업체에서 일했다. 사고가 난 뒤에 경찰과 노동부에서도 철저히 조사했고, 그에 따라 본사인 아빠 회사는 책임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런데도 일부 시민들과 임준서 가족은 아빠 회사에 사과와 배상뿐 아니라 아빠를 처벌하라는 요구까지 하며 날마다 회사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죽음이 안타깝긴 하지만 그것은 과도한 행위였다.

……(중략)……

“정말 그렇게 믿어? 정말 우리 가족이 보상금 더 타내려고 오빠 죽음을 판다고 생각해? 함부로 우리 오빠를 욕보이지 마. 왜 시위하는 줄 알아? 진상규명하고 사과하라는 거야. 일하다 죽지 않게 해 달라고 요구하는 거야. 멀쩡하게 출근한 사람이 가족 품에 돌아오지 못한 채 죽는 일이 없게 해 달라는 거야. 그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시설을 개선하고 관리 감독을 강화하라는 거야. 파견 나온 비정규직 노동자도 본사 정규직 노동자 처럼 보호하라는 거야. 다른 회사가 절대 아니야. 그 회사는 사내하청업체고 평상시에 모든 관리는 너희 아빠 회사가 다 했어. 관리감독 권한은 실컷 행사하다가 사고가 나니 자기 책임이 아니래. 경찰이랑 노동부는 힘이 센 너희 아빠만 보호했어. 우리 가족은 보상 따위는 바라지도 않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너희 아빠가 그러든?”

……(중략)……

“우리 오빠가 어떻게 죽었는지 알아? 지게차로 나르던 철판에 깔려 죽었어. 지게차가 신고 가던 2톤이나 되는 철판이 충돌로 떨어졌고, 지시를 받고 다른 작업을 하기 위해서 그곳을 지나가던 오빠를 덮친 거야. 시신조차 온전하지 못할 만큼 처참하게 죽었어. 위험한 작업이었고 노동자들이 빈번하게 다니는 곳이었는데도, 그 자리에 신호수 한 명이 없었어. 그 큰 회사가 위험한 작업을 하는데 신호수 한 명을 두지 않았던 거야. 신호수 일당이 얼마인지 알아? 많이 줘 봐야 하루에 10만 원이야. 10만 원 때문에 오빠가 죽은 거야. 그 돈 아끼려다 우리 오빠를 죽인 거라고.”

임혜서 눈에 핏발이 섰다.

- 132~134 쪽

(나)

지난 15일 새벽 6시20분께 국내 제빵업계 1위 에스피씨그룹 계열사 에스피엘(SPL)의 경기도 평택 공장에서 샌드위치 소스를 혼합하던 ㄱ(23)씨가 상반신이 혼합기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ㄱ씨의 앞치마가 혼합기에 끼여 기계로 빨려 들어간 것으로 추정된다. 이 공장에선 일주일 전에도 유사한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사고예방 등 안전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작업은 '2인1조'가 원칙이었지만, 동료 직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가 발생한 기계는 덮개를 열면 자동으로 기계가 멈추는 장치인 자동방호장치(인터록)가 없었다. 사고가 난 공장은 에스피씨 제과점 프랜차이즈인 파리바게뜨에 빵 반죽과 재료를 납품한다. 해당 공장은 사고 다음날 곧장 기계 가동했다. 아직 조사가 마무리 되지 않아 핏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는 상황인데, 그 옆에서 직원들은 빵을 만들었다.

- 출처 : 한겨레신문. 장현은. 2022. 10. 16.

(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내용

| | |
|-----------|---|
| 주요 내용 |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 |
| 중대산업재해 정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②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 필요 ③ 직업성 질병자 3명 이상 |
| 처벌 | 사망시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 계획

2022년 7월~

경영책임자 의무 명확화를 위한 시행령 개정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마련,
현장으로 및 법리적 문제점 등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전문가 TF 운영)



*자료: 고용노동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자료
그래픽: 이지혜 디자인가자

(라)

지난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가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시행했는지 따져보고 그렇지 않다고 판단되면 형사처벌하는 법이다. 형벌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이다. 재계는 중대재해법에서 규정하는 CEO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형량 부담이 과도하다고 주장해왔다.

전승태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 산업안전팀장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을 CEO 개인에게 다 지우고 형량을 징역 1년 이상으로 두는 것은 과도하다"라며 "기업의 안전관리체계에 문제가 있었다면 법인(회사운영의 법적 주체)에 대한 벌금 등의 방식이 더 적절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중대재해 수사를 받는 기업들은 CSO(최고안전책임자)가 있었다라도 100% 모두 대표이사가 피의자로 입건됐다"며 "기업들 입장에서는 뭘 지켜야 하는지 불명확한 상황에서 대표가 처벌받을지 모른다는 불안함이 있다"고 했다.

앞서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이하 중견련)는 중대재해의 정의를 '다수의 사망자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재해'로 규정하고 사망사고 발생 시 처벌 하한 규정을 상한 규정으로 전환해달라고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요청하기도 했다. 또 안전·보건확보의무를 다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처벌을 면제해달라고도 했다.

- 출처 : 머니투데이. 김주현. 2022-06-22

● 토론을 하기 전에 제시문의 내용이 무엇인지 충분히 이해하고 정리하세요.

| □ 찬성 | □ 반대 |
|---|---|
|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조치 등을 미흡하게 했다면 기업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이 정당하다. | 기업 책임자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과도하며 해당 회사에 벌금을 많이 내게 하는 것이 더 적절한 방법이다. |

■ 내 주장의 근거

■ 친구들의 근거

| 나와 같은 주장인 친구들의 근거 | 나와 다른 주장인 친구들이 제시한 근거 |
|-------------------|-----------------------|
| | |

■ 토론을 마치고 생각을 정리해 보세요.

생각 확장하기

【질문1】 전태일이 어린 소녀들에게 준 풀빵과 제시문(나)에 실린 글을 통해 엿볼 수 있는 전태일의 마음을 적어보세요?

(가)

그런 재단사는 처음이었다. 시다인 자신에게 반말을 쓰지 않고, 친절하게 대했다. 힘들어 보이면 쉬라고 하며 자신이 대신 일을 했다. 어느 날 그 재단사는 배고파 손가락을 빠는 어린 시다들에게 풀빵을 사서 나누어 주었다. 그 뒤로 날마다 풀빵을 사 주었고, 재단사 오빠가 사주는 풀빵을 먹는 시간이 제일 행복한 시간이 되었다. 더구나 재단사 오빠가 자신들에게는 풀빵을 사 주는 대신, 2시간도 더 걸리는 집까지 걸어갔다는 사실도 알게 되면서 감동은 수백 배로 늘어났다. 그때부터 소녀는 남몰래 그 오빠를 좋아하고 존경했다. 그 오빠는 틈만 나면 근로기준법이니, 생리휴가니 하는 알아듣기 힘든 말을 했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었지만, 오빠가 하는 말이니 무조건 맞을 거라고 생각했다. - 142~143쪽

(나)

나는 돌아가야 한다,
꼭 돌아가야 한다.
불쌍한 내 형제의 곁으로, 내 마음의 고향으로,
내 이상의 전부인 평화시장의 어린 동심 곁으로.
생을 두고 맹세한 내가,
그 많은 시간과 공상 속에서,
내가 돌보지 않으면 아니 될 나약한 생명체들.
나를 버리고,
나를 죽이고 가마.
조금만 참고 견디어라.
너희들의 곁을 떠나지 않기 위하여
나약한 나를 다 바치마.
너희들은 내 마음의 고향이로다.

(전태일 열사가 남긴 일기 중에서)

- 출처 : 전태일평전(조영래/아름다운전태일)

【질문2】 임혜서가 발견한 희망이란 무엇일까요?

“나는 네 아빠를 원수로 생각해. 우리 오빠를 죽게 한.”
원수라는 낱말을 애써 흘려보내려 했지만, 내 감각은 그러지 못했다. 눈이 파르르 떨리고 팔이 바늘로 찔린 듯 찌릿했다.
“그런데 그 딸이 힘없는 노동자를 위해서 온 힘을 다해 노력하다니…… 정말 감동이었어.”
감동이란 낱말에 떨림이 가라앉았다.
“그건 이진석이 내 친구라서…….”
“너도 말했잖아. 단지 친구라서가 아니라고.”
나는 가만히 있었다.
“나는 나쁜 인간들은 모조리 쳐부수어야만 한다고 생각했는데……, 너를 보면서 다른 방식도 가능할지도 모르겠다는 희망이 생겼어. 그래서 고맙다고 한 거야.”

나와 연결하기

【질문3】 여러분 중 대부분은 장차 노동을 하며 살거나 노동을 하는 사람을 고용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법에서는 노동하는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다른 사람을 고용한 사람이 지켜야 할 의무를 정해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법에 명시된 권리도 잘 모르고, 그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잘 모릅니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 봅시다.

3-1. 대한민국 헌법은 왜 아래와 같은 권리를 보장하고 있을까요?

대한민국헌법 제33조 ①항
-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용어해설>

- * 단결권 : 노동자가 노동조건의 유지·개선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운영하며 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
- * 단체교섭권 : 노동자가 사용자에 대해 대등한 입장에서 그들의 노동조건, 복지후생,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에 대해 교섭할 수 있는 권리
- * 단체행동권 : 경제적 약자인 노동자가 강자인 사용자에 대항하여 노동조건의 유지·개선을 위하여 파업·태업·시위 운동 등의 단체적 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

3-1. 편의점 주인은 법을 지키라는 요구를 왜 ‘배신’으로 받아들였을까요?

수습 기간 3개월이 지나자 임금도 올랐다. 그동안은 수습 기간이라고 최저임금에서 10%가 깎인 금액을 받았는데, 드디어 최저임금을 제대로 받게 된 것이다. 임금이 오르자 형은 더욱 열심히 일했다. 그렇게 두 달이 지났을 때 형은 자신이 법에서 정한 임금을 제대로 못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법에는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조건에서 수습 기간 3개월까지만 최저임금에서 10%를 깎은 금액을 줘도 된다고 명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형은 졸업할 때까지만 일하겠다고 밝혔으므로 계약기간이 1년이 넘지 않았다. 따라서 수습 기간이라고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을 주면 안 되었다. 더구나 하루에 여덟 시간, 일주일에 48시간이나 근무를 했기에 주휴수당을 받아야 하는데, 편의점 주인은 주휴수당도 지급하지 않았다.

법에 명시된 규정이기에는 형은 당연하게 편의점 주인에게 3개월 동안 깎인 금액을 달라고 했다. 물론 주휴수당도 달라고 요청했다. 형은 처음에는 편의점 주인이 법을 잘 몰라서 실수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가볍게 말을 꺼냈던 것이다. 법을 어기면 편의점 주인도 처벌을 받으니 편의점 주인을 위해서도 자신이 좋은 정보를 알려 주었다고 믿었다. 그러나 편의점 주인이 보인 반응은 형이 기대한 반응과는 완전히 달랐다.

“그동안 잘 대해 줬더니 이렇게 배신을 해?”

“네? 배신이요? 제가요?”

형은 배신이란 말에 몹시 당황했다.

“너를 내 아들처럼 대했는데…….”

형은 어처구니가 없었다. 법에 명시된 대로 임금을 달라고 했을 뿐인데 아들처럼 대했다느니, 배신했다느니 하는 반응이 이해가 안 됐다.

【질문4】 21세기 선진국에 되었다는 대한민국에서 왜 아직도 그 옛날의 순희처럼 무수한 사람들이 일터에서 억울한 죽음을 당하고 있는 걸까요?

(가)

그러던 어느 날, 순희가 심하게 기침을 하더니 검은 피를 토해 냈다. 할머니는 깜짝 놀랐지만, 주위에서는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다. 할머니가 걱정했지만, 순희는 아무렇지 않게 피를 닦아 내더니 핏자국이 남은 손으로 일을 계속했다. 쉬라고, 건강을 챙기라고 말했지만 그럴 수 없다는 건 할머니도 알았다.

“내가 여기서 그만두면 우리 식구는 다 굶어 죽어.”

여덟 식구를 먹여 살릴 무게를 짊어지고 아프지 않은 척 일을 하던 순희는 어느 날 상상도 할 수 없이 많은 피를 토하더니 그대로 쓰러졌다. 그 뒤로 순희는 작업장에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할머니는 영혼을 잃은 고통에 하염없이 울었지만, 언니들은 아무렇지 않게 일했고, 사장은 업무에 방해된다고 어린 소녀를 무섭게 야단쳤다. 몇 달이 지난 뒤, 함께 일하는 언니가 이웃집 강아지가 죽었다는 소식보다도 감정 없이 순희가 죽었다는 소식을 전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충격이었지만, 눈물 한 방울 마음껏 흘릴 수 없었다. 순희가 죽은 나이는 겨우 열네 살이었다. 하얀 옷을 즐겨 입던 순희는, 간절히 먹고 싶던 빵도 한 번 먹어 보지 못한 채 그렇게 덧없이 죽었다.

(나)

2001년 10월 특성화고 3학년생이었던 홍정운 군은 현장실습을 나간 요트업체에서 잠수 자격증도 없이 바다 아래 요트 바닥에 붙은 따개비 제거 작업을 하던 중 물에 가라앉아 숨졌다. 잠수 작업은 근로기준법상 18살 미만이 일할 수 없는 금지 직종이었지만, 홍정운 군은 자신의 체중에도 맞지 않는 11kg 넘는 납벨트(잠수장비)를 차고 홀로 작업에 투입됐다가 변을 당했다.

당시 홍정운 군에게 오리발과 잠수복을 주며 잠수 작업을 지시한 요트업체 사장 ㄱ씨는 잠수장비 착용법이 나 안전교육도 하지 않았고, 2인1조 잠수 작업 원칙도 지키지 않았다. ㄱ씨는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유족과의 합의 등을 이유로 2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으로 크게 감형 받았다.

(다)

- 김용균 : 23살. 2018년 12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
- 이선호 : 23살. 2021년 4월 경기 평택항에서 300kg 컨테이너 날개에 깔려 사망
- 홍정운 : 19살. 2021년 10월 여주시 요트선착장에서 배에 붙은 따개비를 따다 사망
- 황유미 : 23살.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급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2년 만에 사망
- 2021년 우리나라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한 사람 2062명
(작업 중 사고로 사망한 사람 828명 ... 근무 중 얻은 질병으로 인한 사망 1180명)

【질문5】 소희는 끊임없이 환상에 시달립니다. 그 환상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온몸이 불길에 휩싸인다. 울부짖는다. 내 말을 들어 달라고, 내 고통을 알아 달라고 외친다. 안 들린다. 절절히 외치는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천장이 점점 내리누른다. 비명을 지른다. 피할 곳이 없다. 엄청난 쇳덩이가 나를 덮친다.

.....(중략).....

할머니는 나를 달래며 어떤 악몽을 꾸었는지 물었고, 다시 떠올리기 싫은 악몽을 할머니께 천천히 들려 드렸다.
 “어쩌면... 이럴 수가..... 네가 어찌 그 꿈을 꾀단 말이냐?”
 내 악몽을 들은 할머니는 몹시 놀라셨다.
 “나를 평생 괴롭힌 악몽인데......”

- 137~138쪽

독후감을 쉽게 쓰는 방법

흔히 독후감은 '동기-줄거리-감상', 또는 '요약-인상 깊은 장면-경험·감상'과 같은 형식으로 씁니다. 이런 형식으로만 쓰니 독후감이 딱딱하고 재미가 없습니다. '창의적인 형식'을 택하면 독후감 쓰기도 쉽고, 내용도 신선합니다. 독후감을 쓸 때는 1)형식을 택하고, 2)형식에 맞는 준비를 한 다음, 3)핵심 요령을 기억하면서 거침없이 쓰면 됩니다. 초고를 쓴 뒤에는 쪽 읽으면서 부드럽게 고치기만 하면 독후감이 완성됩니다.

| 형식선택 | 준비항목 | 독후감을 쓰는 핵심요령 |
|-------|---|---|
| □편지쓰기 | ①편지를 받을 대상 설정 ②편지에 다룰 책 내용 선택 ③편지로 전하고 싶은 말 | • 편지 쓰기 형식에 맞춰서 쓴다. (모르면 조사하기) • 책의 중심 내용과 관련된 생각과 감정을 담는다.(신변잡기X) |
| □인터뷰 | ①인터뷰 대상 설정 ②질문을 다양하게 준비 ③답변 생각해 보기 | • 여는 글 : 인물을 간단하게 소개하거나 인터뷰 취지를 쓴다. • 인터뷰 : 실제 인물이 답하듯이 쓴다.(역지사지) • 닫는 글 : 인터뷰 내용 정리, 감상, 생각 등을 정리한다. |
| □생활글 | ①경험을 떠올리게 한 내용 ②책과 연결된 자기 경험 ③경험과 독서로 깨달은 점 | • 책 내용을 소개하면서 자기 경험과 자연스럽게 연결한다. • 자기 경험을 실감나게 소개한다. • 소설과 비슷한 점을 거론하며 깨달고 느낀 점을 제시한다. |
| □기행문 | ①경험할 장소나 상황 선택 ②나라면 어떨지 생각 ③경험으로 배우고 느낀 점 | • 기행문 형식에 맞춰 쓴다. (모르면 조사하기) • 내가 소설 속 장소를 방문하거나, 상황에 처하는 것처럼 설정하고 흥미진진하게 서술한다. |
| □신문기사 | ①책에서 다룰 사건 선택 ②사건을 기사처럼 정리 ③사건을 평가하는 관점 | • 기사를 쓰는 형식에 맞춰 쓴다. (모르면 조사하기) • 사건소개, 인터뷰, 사건에 대한 평가를 적절히 섞어서 쓴다. • 기사처럼 제목을 붙인다. |
| □인물분석 | ①인물의 특성을 정리 ②평가할 행동이나 선택 정리 ③나의 평가 준비 | • 평가할 인물이 어떤 사람인지 소개한다. • 일정한 기준으로 긍정과 부정을 가르는 것이 평가이므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인물의 행동이나 선택, 사고방식 등을 다룬다. |
| □한 문장 | ①좋은 문장 하나만 선택 ②문장이 나온 배경 정리 ③문장에서 얻은 배움 정리 | • 그 문장이 나온 맥락을 소개한다. • 한 문장이 내게 끼친 영향, 깨달음, 느낀 점 등을 개인의 경험과 연관지어 자세하게 서술한다. |
| □토론 | ①토론 주제 뽑아내기 ②토론주제가 나온 상황 정리 ③내 의견 정리 | • 토론주제가 나온 상황을 정리한다. • 자기 의견을 선택한 근거를 제시하며 주장한다. • 반드시 반대 의견을 다룬다.(반론과 재반론 형식으로) |
| □시사문제 | ①책과 연결된 시사문제 선택 ②시사문제 정리 ③시사문제 평가 또는 분석 | • 책 내용과 시사문제를 적절하게 섞어서 소개한다. • 책에서 수립한 관점을 바탕으로 현 사회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평가한다. |
| □서평 | ①소개할 대상 선정 ②책의 매력 정리 ③꼭 읽어야 할 이유 정리 | • 서평은 책 소개글이므로 소개할 대상이 명확해야 한다. • 어떤 사람이 이 책을 읽으면 좋을지 설명한다. • 책이 지닌 매력과 책을 권하는 이유를 제시한다. |

※ 자세한 설명 및 실제 독후감 예시는 『청소년 독서콘서트』(박기복/행복한나무) 참조

독후감 쓰기 준비

- 1단계 : 자신이 원하는 독후감 형식을 선택합니다.
- 2단계 : 선택한 독후감 형식의 준비사항①~③을 오른쪽 '준비사항①,②,③'에 각각 적습니다.
- 3단계 : 독후감에 적을 세부 내용을 각 준비사항에 맞게 간략하게 정리합니다.

| 독후감 형식 | 준비사항 | 준비사항① |
|-------------------------------|---|---|
| <input type="checkbox"/> 편지쓰기 | ①편지를 받을 대상 설정 ②편지에 다룰 책 내용 선택 ③편지로 전하고 싶은 말 | 준비사항① 인사형 작성 인사형 대상 : 정치, 문화, 예술, 동물, 식물, 자연, 환경, 사회, 인물, 사물 등 설치는 자유, 주제와 정통하게 쓴다. 간접으로 모든 것 가능. 어떤 사물을 골라 전 할지 고민해서 많이. 단행본에서 골라 써도 됨. 친구가 왜 선택을 했는지 이유를 포함. |
| ■ 인터뷰 | ①인터뷰 대상 설정 ②질문을 다양하게 준비 ③답변 생각해 보기 | 준비사항② 질문을 다양하게 준비 이 주제를 친구들을 질문할 때 어떤 질문을 하겠는가? 이 주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 주제를 어떤 각도에서 다룰 것인가? 이 주제가 왜 선택을 했는지 이유를 포함. |
| <input type="checkbox"/> 생활글 | ①경험을 떠올리게 한 내용 ②책과 연결된 자기 경험 ③경험과 독서로 깨달은 점 | 준비사항③ 독서 생각해 보기 이 책을 읽었는데, 어느 부분이 인상 깊었는가? 이 책을 읽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이 책은 어떤 점이 좋아서 읽었는가? 이 책을 읽은 후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
| <input type="checkbox"/> 기행문 | ①경험할 장소나 상황 선택 ②나라면 어떻게 생각 ③경험으로 배우고 느낀 점 | |
| <input type="checkbox"/> 신문기사 | ①책에서 다룬 사건 선택 ②사건을 기사처럼 정리 ③사건을 평가하는 관점 | |
| <input type="checkbox"/> 인물분석 | ①인물의 특성을 정리 ②평가할 행동이나 선택 정리 ③나의 평가 준비 | |
| <input type="checkbox"/> 한 문장 | ①좋은 문장 하나만 선택 ②문장이 나온 배경 정리 ③문장에서 얻은 배움 정리 | |

| 독후감 형식 | 준비사항 |
|-------------------------------|---|
| <input type="checkbox"/> 편지쓰기 | ①편지를 받을 대상 설정 ②편지에 다룰 책 내용 선택 ③편지로 전하고 싶은 말 |
| <input type="checkbox"/> 인터뷰 | ①인터뷰 대상 설정 ②질문을 다양하게 준비 ③답변 생각해 보기 |
| <input type="checkbox"/> 생활글 | ①경험을 떠올리게 한 내용 ②책과 연결된 자기 경험 ③경험과 독서로 깨달은 점 |
| <input type="checkbox"/> 기행문 | ①경험할 장소나 상황 선택 ②나라면 어떻게 생각 ③경험으로 배우고 느낀 점 |
| <input type="checkbox"/> 신문기사 | ①책에서 다룬 사건 선택 ②사건을 기사처럼 정리 ③사건을 평가하는 관점 |
| <input type="checkbox"/> 인물분석 | ①인물의 특성을 정리 ②평가할 행동이나 선택 정리 ③나의 평가 준비 |
| <input type="checkbox"/> 한 문장 | ①좋은 문장 하나만 선택 ②문장이 나온 배경 정리 ③문장에서 얻은 배움 정리 |
| <input type="checkbox"/> 토론 | ①토론 주제 뽑아내기 ②토론주제가 나온 상황 정리 ③내 의견 정리 |
| <input type="checkbox"/> 시사문제 | ①책과 연결된 시사문제 선택 ②시사문제 정리 ③시사문제 평가 또는 분석 |
| <input type="checkbox"/> 서평 | ①소개할 대상 선정 ②책의 매력 정리 ③꼭 읽어야 할 이유 정리 |

준비사항①

준비사항②

준비사항③

독후감 공유하기

※ 독후감을 공유할 때는 평가를 하지 말고 독자로서 반응해주세요.
글을 공유하며 서로가 지닌 생각과 느낌에 공감하고,
나와 친구가 함께 발전하는 기회가 되도록 합니다.

1. 내가 쓴 독후감을 읽은 친구들의 반응을 적습니다.

| 친구이름 | 친구가 해준 말 |
|------|----------|
| | |
| | |
| | |
| | |
| | |

2. 친구들이 쓴 독후감을 읽고 돋보이는 점을 찾습니다.

| 친구이름 | 친구가 해준 말 |
|------|----------|
| | |
| | |
| | |
| | |
| | |

3. '한 학기 한 권 읽기' 활동을 마무리하며 드는 생각, 느낌을 적습니다.

※책과 친구가 되면 인생이 풍요롭게 가꿀 수 있습니다.



행복한나무 출판사

※ 청소년 성장소설 [십대들의 힐링캠프]는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담은 시리즈입니다.

청소년들이 꿈을 위해서, 지금은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 당장 무엇이 필요한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꿈, 진로, 관계, 사랑, 우정 등을 키워드로 한 <성장소설>부터 과학, 신화 등의 <지식소설>도 담고 있습니다. 동학, 대장간 소녀, 소년 독립군 등의 주제를 통해 <역사소설>을 만날 수 있고, 선감학원, 형제복지원 등을 통해 <인권소설>도 만날 수 있습니다. 중고등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과목인 수학을 쉽게 읽을 수 있는 <수학소설>도 있습니다.